

핸드셋

산업이슈 브리프 |

Check Point

- 글로벌 1.3 억대 (YoY -3.8%, MoM +3.7%)
- 중국 2,879 만대 (YoY -15.1%, MoM +11.2%)
- 인도 1,472 만대 (YoY +3.3%, MoM -26.4%)
- 미국 1,376 만대 (YoY -4.6%, MoM +14.9%)

11월 글로벌 스마트폰 판매량 혼자 다한 애플

Analyst 이왕진 02 3779 8832 wangjin4268@ebestsec.co.kr

글로벌 스마트폰 판매량: 1.3억대 (YoY -3.6% / MoM +3.7%)

- 글로벌 스마트폰 판매량은 1.3억대로 '애플지연'로직으로 감소한 9월, 10월 이후 재 반등
- 금번 글로벌 스마트폰의 반등은 한마디로 애플이 혼자 다 했다 해도 무방할 정도로 아이폰이 글로벌 판매량 반등을 견인. 글로벌 스마트폰 판매량은 전월 대비 약 +4.6백만대 증가하였는데, 삼성전자 -1.34백만대, 화웨이 -0.59백만대, 중3사 -1.37백만대 감소한 반면 애플은 +9.51백만대 증가하며 타 OEM 하락을 모두 흡수

중국: 2,879만대 (yoY -15.1%, mom +11.2%)

- 당사가 지속적으로 관심을 기울인 중국의 판매량은 yoY 두자리수 역성장을 아직도 탈피하지 못함. 10월 대비해서 상승한 이유는 중3사 브랜드 판매량의 드라마틱한 턴어리온드가 아닌, 중국 외 브랜드, 애플이 견인(전체 +2.88백만대 중 +1.30백만대가 애플 판매량 증가분).
- 중국 내 M/S 변화 역시 유의미한 변화를 기록 중. 화웨이는 40.3%→26.3%→23.6%로 M/S가 지속 하락하고 있는 가운데, 애플의 중국 M/S는 18.1%를 기록하며 화웨이 점유율에 균접. 애플의 중국 내 점유율이 가장 높았던 때는 2015년 12월 17.9%로, 금번 역사적 고점을 재 경신

인도: 1,472만대 (yoY +3.3%, mom -26.4%)

- 애플을 제외한 OEM들이 금번 부진한 모습을 이어가는 가운데 애플 M/S가 매우 미비한(2.2%) 인도 판매량은 yoY 상승으로 돌아서며 타 국가대비 상대적으로 선방하는 모습을 보임
- M/S 변화는 이제 삼성전자와 샤오미가 각축을 보이고 있으나 드라마틱 한 변화는 이제 일어나지 않는 모습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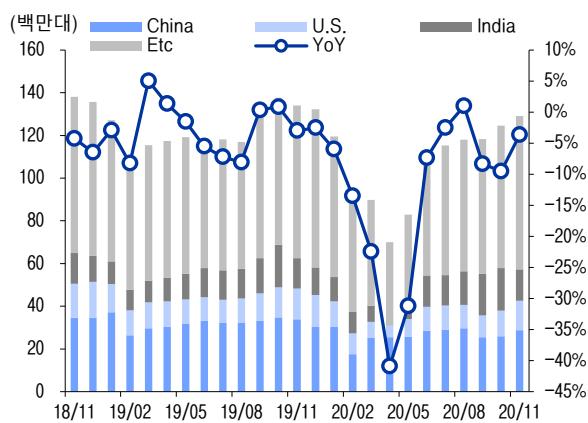
미국: 1,376만대 (yoY -4.6%, mom +14.9%)

- 애플 판매량과 상관관계가 가장 높은 미국의 경우 반등을 지속하는 중. 무차별적인 코로나 폭발에 휩싸인 미국의 현재 상황을 고려해 본다면 아직까지 판매량이 yoY -수준이긴 하나, 반등 자체가 의미 있는 것으로 판단
- 애플이 중국 내 점유율에서 record-high를 기록한 것과 같이 미국에서 64.1%라는 경이로운 수치를 기록하며 record-high 경신

핵심 동향: Sell-in vs Sell-through 괴리 지속 증가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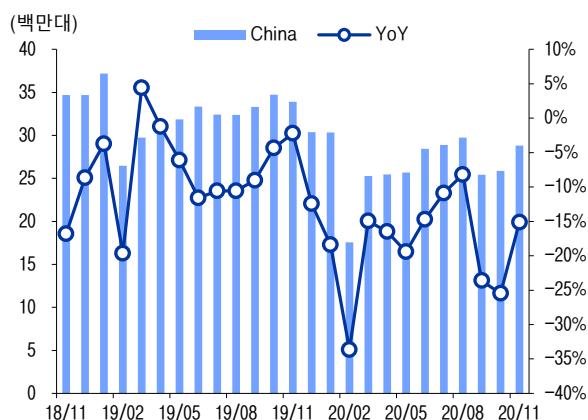
- 당사는 지난 11월부터 판매량 부진에도 불구하고 공격적인 sell-in이 지속되는 상황을 관찰해왔으며, 이로 인한 재고조정을 우려하고 있다.
- 통상 연말에 sell-in 재고가 build-up되어 가는 구간이긴 하며 1~2분기를 넘어가며 판매량을 통해 재고가 소화되는 모습을 띄지만 통상 고점일 때도 7% 수준에 머물던 sell-in vs sell-through 괴리가 이번 11월 9% 수준까지 벌어짐에 따라 이러한 우려가 내년 1분기 현실화 될 가능성이 점차 높아진다 판단한다.
- 애플의 경우 상대적으로 판매량이 강하게 일어나지만, 해당초 화웨이 낙수물량을 공격적으로 접근한 중3사의 경우 판매량이 지속 부진한 모습을 띄기 때문에 노출도가 가장 높을 수 있다 전망한다.

그림1 글로벌 스마트폰 판매량 오랜만에 반등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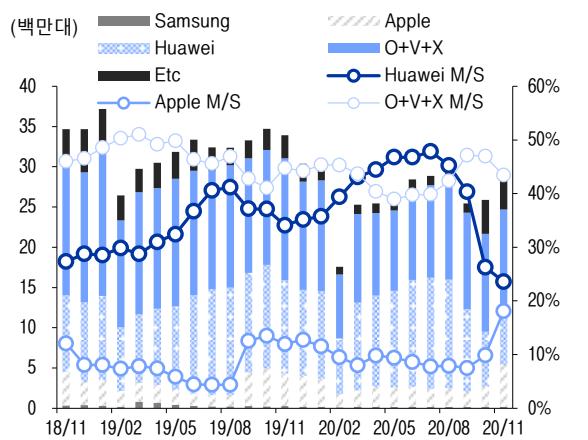
자료: Counter Point, 이베스트투자증권 리서치센터

그림3 중국 애플효과 vs 두자리수 감소 지속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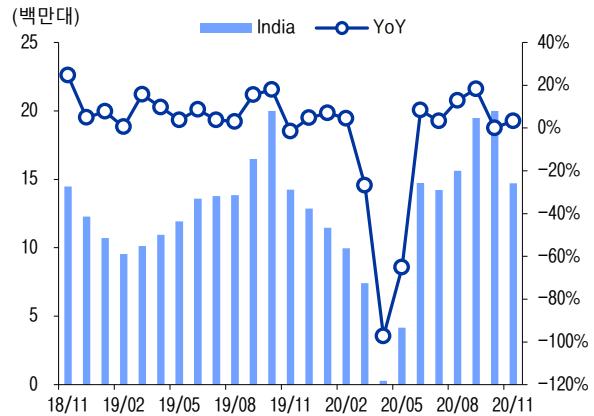
자료: Counter Point, 이베스트투자증권 리서치센터

그림5 중국 내 애플 M/S 역사적 고점 경신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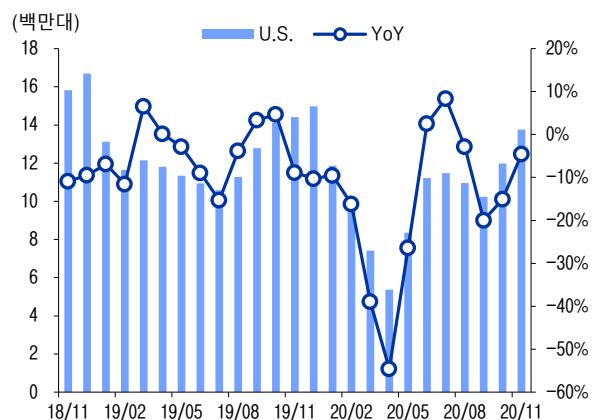
자료: Counter Point, 이베스트투자증권 리서치센터

그림2 인도 사그라진 pent-up demand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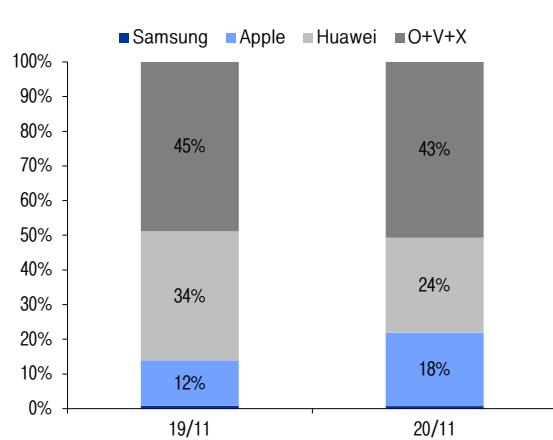
자료: Counter Point, 이베스트투자증권 리서치센터

그림4 미국 코로나 pandemic에도 불구하고 견조한 반등 유지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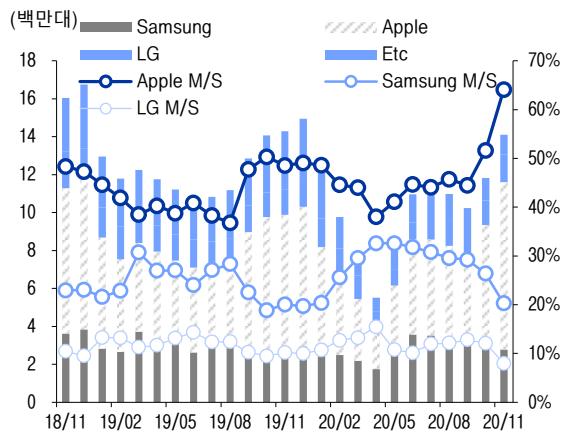
자료: Counter Point, 이베스트투자증권 리서치센터

그림6 중국 애플의 드라마틱한 성장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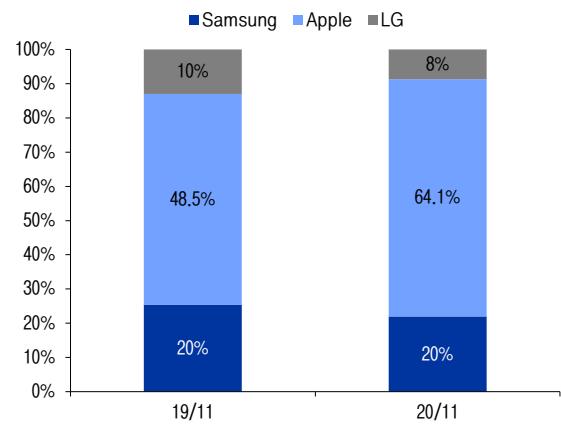
자료: Counter Point, 이베스트투자증권 리서치센터

그림7 미국 내 역시 애플 M/S 역사적 고점 경신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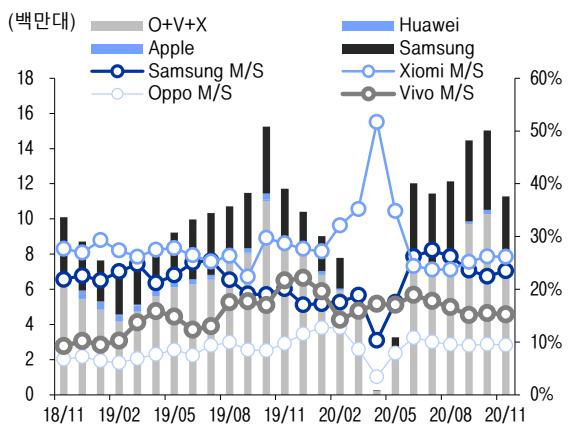
자료: Counter Point, 이베스트투자증권 리서치센터

그림8 미국 상대적으로 견조한 전자 vs 암도적인 애플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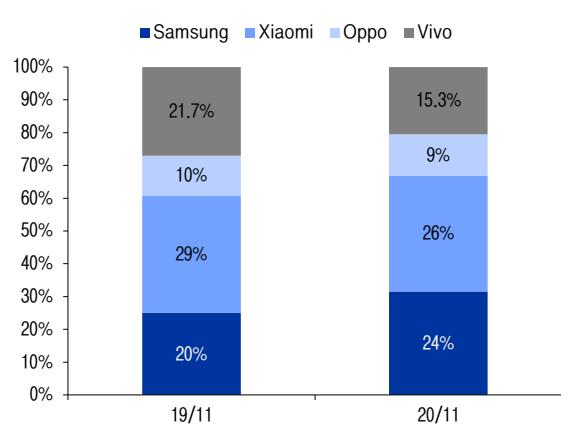
자료: Counter Point, 이베스트투자증권 리서치센터

그림9 인도 잔잔해진 M/S 변동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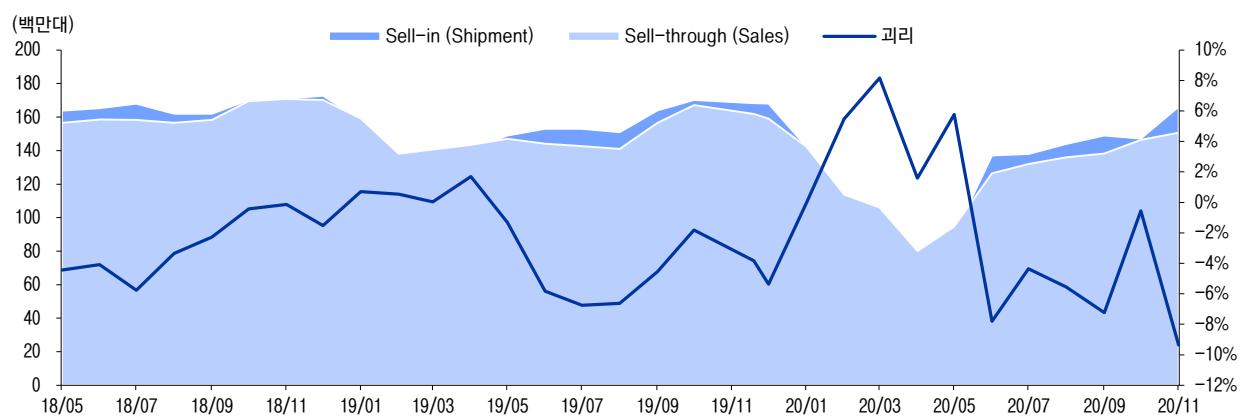
자료: Counter Point, 이베스트투자증권 리서치센터

그림10 인도 샤오미가 M/S 1위 수성 중



자료: Counter Point, 이베스트투자증권 리서치센터

그림11 Sell-in vs Sell-through



자료: Counter Point, 이베스트투자증권 리서치센터

Compliance Notice

본 자료에 기재된 내용들은 작성자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 없이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(작성자: 이왕진)
 본 자료는 고객의 증권투자를 돋기 위한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제작되었습니다. 본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 리서치본부가 신뢰할 만한 자료 및 정보를 바탕으로 작성한 것입니다. 당사가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하시기 바라며 유가증권 투자 시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하에 최종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.
 따라서 본 자료는 어떠한 경우에도 고객의 증권투자 결과에 대한 법적 책임소재의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.
 본 자료는 당사의 저작물로서 모든 저작권은 당사에게 있으며 어떠한 경우에도 당사의 동의 없이 복제, 배포, 전송, 변형될 수 없습니다.
 - 동 자료는 제공시점 현재 기관투자가 또는 제 3 자에게 사전 제공한 사실이 없습니다.
 - 동 자료의 추천종목은 전일 기준 현재당사에서 1% 이상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.
 - 동 자료의 추천종목은 전일 기준 현재 당사의 조사분석 담당자 및 그 배우자 등 관련자가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.
 - 동 자료의 추천종목에 해당하는 회사는 당사와 계열회사 관계에 있지 않습니다.

투자등급 및 적용 기준

구분	투자등급 guide line (투자기간 6~12개월)	투자등급	적용기준 (향후12개월)	투자의견 비율	비고
Sector (업종)	시가총액 대비 업종 비중 기준 투자등급 3단계	Overweight (비중확대) Neutral (중립) Underweight (비중축소)			
Company (기업)	절대수익률 기준 투자등급 3 단계	Buy (매수) Hold (보유) Sell (매도)	+15% 이상 기대 -15% ~ +15% 기대 -15% 이하 기대	86.9% 13.1%	2018년 10월 25일부터 당사 투자등급 적용기준이 기준 ±20%에서 ±15%로 변경
		합계		100.0%	투자의견 비율은 2019. 10. 1 ~ 2020. 9. 30 당사 리서치센터의 의견공표 종목들의 맨마지막 공표의견을 기준으로 한 투자등급별 비중임 (최근 1년간 누적 기준, 분기별 갱신)